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代價 壹部(朝夕刊)金五錢 朝刊 貳錢 夕刊 參錢 壹個月 金壹圓參拾錢 三個月先金 參圓九拾錢 六個月先金 七圓五拾錢(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活字 壹行 金壹圓廿錢 同上 報內 四號 九字詰 壹行 貳圓四拾錢 八拾錢 七字詰 壹行 貳圓 指定料 五號每行 參拾錢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崔益善
發行所 京城水標町四三 朝鮮日報社 振替京城二〇九九 電話(光化門)一三七二 一四七三 二六二 一八七七

論說

中國關稅會議의 結末

一

七月三日에 列國의 全權은 北京和蘭公使館에 會議를 열고 一個의 聲明書를 發表하야 關稅會議를 中止하고 中國政府의 全權委員이 列國의 全權과 諸種問題의 討議를 再開할수잇게되면 그것을 繼行할 希望을 가졋다고하엿다 그리하야 昨年十月二十六日부터 八九個月동안을 끌어오던 會議는 事實上 終結되고 말엇다 中國再開할 希望을 開陳한 것은 中國民衆을 激動식히지 아니하려고하는 外交的 深謀遠慮에서 나온 것이니 그에 違信하기 어려운바잇고 그 正式政府의 成立만 가지고는 不足하겟고 반드시 昨年夏間에 잇던 바와가튼 民衆的 運動이 잇서야할 것을 닛는바이다

二

本來中國에 對하야 關稅不自主의 束縛을 加한 것은 英國이엿섯스니 英國은 關稅會議成立前부터 그에 對하야 極히 冷淡한 態度를 取하여왓고 더군다나 中國側에서 華盛頓條約協定의 範圍를 버서나서 正面으로 關稅自主權을 主張함에 이르러서는 더욱 難色이 잇섯다 그러나 그 時의 形勢는 傲慢한 英國으로서도 中國民의 要求에 聽從하지아니하면 아니되게한바잇섯다 昨年五月三十日의 上海京路事件으로 因하야 中國民의 排外運動은 中國全土를 風靡하고 더군다나 그 鋒先은 英國에 向하게되엿다 形勢가 이와가티 險惡하게되엿슴으로 列國은 中國民의 歡心을 살 必要를 늣기고 더군다나 英國은 中國民을 또 激動식히지 아니할 必要를 切實히 늣기엿섯다 그리하야 畢竟 關稅會議에 잇서서 中國의 關稅自主權을 認定하야 一千九百二十九年一月一日부터 實現될터이라는 問題外지도 列國의 諒解를 엇게되엿섯다

三

그러나 問題가 이와가티 發展된것은 決코 列國의 好意的 態度에서 나온것이 아니라 中國民의 排外運動의 威脅에 못니기여서 그리한 것이엿고 日本이 率先하야 關稅自主權承認에 贊成하는 態度를 取한것도 英國이 그에 贊成하기를 躊躇하는 것을 알기때문이엿다 그리하야 日本은 그 贊成하야 그것이 實施되면 日本은 中國民에게 그 功德을 자랑하야 特別한 利益을 獲得할수잇겟고 그것이 實現되지 아니하면 그 責任은 英國側에 잇게되여 日本은 中國民의 同情을 엇게될것이니 어느便으로보던지 日本은 好意를 標榜하는것이 그 利益일것이엿다 今番에 關稅會議를 中止함에 當하여도 英國은 積極的으로 그것을 主張하엿스나 日本은 그 繼續을 主張하엿섯다 그러나 畢竟 英國의 主張이 勝利를 엇게되여 日本은 떡 有利한 地位에 서게되엿스니 이것이 또한 日本의 對中外交의 成功으로 볼수잇는것이다

四

그리하야 關稅會議는 何等의 效果를 보지못하고 終結을 告하엿다고 볼수잇는데 英國의 地位가 다시한번 中國에 잇서서 危機에 瀕한 것을 생각할수잇는것이다 今後에 이 關稅會議中止로 因하야 中國에 잇서서 다시 『打倒帝國主義』의 運動이 熾熱하게될터이니 그에 잇서서는 더크게 英國의 勢力이 中國으로 驅逐될것을 우리가 豫想하는바이다 勿論今番會議決裂의 責任이 正式政府를 가지지못한 中國側에 잇다고하겟지마는 中國의 分裂을 招致하고 中國의 混亂狀態를 誘起한 軍閥의 割據狀態가 또한 列强의 術策에서 나온바만이라는것을 생각하면 그 會議決裂의 責任이 또한 列强의 野心에 잇다는것을 否認하지아니할수업다 그러나 어느點으로보던지 中國民이 더한層 奮發하야 破壞와 새建設에 努力할 覺悟를 가저야하겟다

『스』島에 强震 死者四百餘名

(파단스마토라島五日發) 五日『파ー드、데、콕』附近에 又復强震이 起하야 死者四百餘名을 出하엿더라

世界無比의 自由國 『我北米合衆國은』
米大統領『쿨』氏의 演說

(費府五日發) 大統領『쿨릿지』氏는 米國獨立記念日에 際하야 當地의 獨立百五十年記念博覽會에서 演說하야 曰 自由平等及民權主義에 基한 一般民衆은 各自主權을 有하다는 宗敎的信念으로서 生한다 그런데 我米合衆國民이 常히 人民으로서 政府를 維持하며 又其政府가 世界無比의 自由政府인것을 見할時는 感激不已하는바이라 云云

米土間最惠條約
八月로 有効期間完了

(君士坦丁堡六日發) 亞米利加 土耳其와 同盟及聯合國間의 講和條約인『로산누』條約을 批准치 아니한 結果 八月로 米國의 最惠條款의 有効期限이 停止할으로 土耳其는 亞米利加品에 高率의 輸入關稅를 賦課하리라더라

時局問題等討議
兩張氏入津即時로 南口總攻擊은 八日

(天津六日發) 張學良 張宗昌은 今曉二時에 入津하얏는데 兩氏는 南口戰線李景林軍改革、政局問題等에 就하야 張作霖에게 報告하고 今後對策을 協議한 後 兩三日中에 再次北京에 歸하얏다가 張作霖과 其後奉天에 歸할 豫定인바 猶南口總攻擊은 八日부터 正式開始될터이라더라

奉天派軍事會議
張作霖을 中心으로

(天津六日發) 今朝張作霖氏를 中心으로 張學良、張宗昌氏等奉天派巨頭의 一大軍事會議가 開하얏더라

瑞典皇后不例
國民은 憂慮中

(나우엔五日發)『스토홀』特報에 依하면 瑞典皇后『빅토리아』陛下의 御不例를 國民은 方今 多大한 憂慮中이라는데 陛下는 獨逸『바ー덴』太后의 義女로서 一八八一年誕生이라더라

佛丁條約調印

(巴里五日發) 佛國西丁抹間의 仲裁裁判條約은 五日에 調印을 了하얏더라

定例閣議
重要政務審議

(東京電) 六日閣議는 午前十時부터 首相官邸에 開會하고 勞頭幣原外相으로부터 中國特別關稅會議中斷에 關하야 去三日의 會議席上英國全權으로부터 中國現狀의 政狀으로는 會議繼續이 到底不可能인 旨를 提唱한바 此에 對하야 米佛兩國全權의 贊成意見이 有하얏슴으로 此際日本政府는 其大勢에 基하야 不得已不遠한 將來에 强固한 中央政府가 樹立될 機會를 待하는 外他道가 無한 旨를 說明하야 茲에 會議는 遂히 中斷키로 決하얏는데 各國共히 此會議를 龍頭蛇尾로 終케함은 遺憾千萬이라하며 確實한 中央政府의 成立을 俟하야 會議續行의 意思가 有한것으로 確信한다 報告하고 濱口藏相으로부터 伊澤臺灣總督이 東京市長就任受諾의 意思가 有한것과 江木法相으로부터 松島事件其後의 事情을 報告하야 終了後內外重要政務를 審議하고 午後一時半에 散會하얏더라

稅調小委員會
十二日頃開會

稅制調査委員會小委會는 第一回會議를 來十二日頃에 開催할 豫定인데 同會議에는 丙國稅로서의 中軸이 되는 一般所得稅의 設定其他補完稅에 關한 體系一般에 對하야 審議할터이라더라

伊澤氏病臥로
就任回答遲延

(東京電) 伊澤總督은 六日上京하야 東京市長就任承諾의 回答을 할터이엇는데 過般來感氣로 因하야 氣管支加答兒를 起한 結果 尙兩三日靜養할 模樣이더라

鮮銀券縮少

鮮銀券은 三日七千五百七十四萬五千圓으로 月初보다 二百六十萬圓을 收縮하야 一兩日中에 發行餘力을 出現케될 貌樣이더라

十一個所의 發電水力調査
遞信局의 新計劃

朝鮮의 西海岸特히 仁川을 基準으로하야 黃海道、全北等各道沿岸一帶는 世界에 有數한 潮의 乾滿의 差가 多大한 地點으로 有名한 곳인데 遞信局에서도 此點에 着目하야 朝鮮內河川의 調査와 相俟하야 會히 潮力을 利用할

發電水力의 調査를 하는

中이던바 其結果仁川附近에서는 約數萬馬力의 電力을 得하게될것이 確定的인것은 旣報한바어니와 然而朝鮮內河川에서 發電水力의 有望視되는 곳은 北鮮方面이 最多하야 將來電力需給의 多大한것이 期待되며 南鮮方面은 比較的少함에 鑑하고 또는 灌漑及耕地의 排水用、農家用等一般動力을 使用하야 適當타 認定되는 潮力에 依한 發電水力調査를 更히 續行할 計畫을 樹立하고 全北、京畿、黃海道의

三道沿岸

十一個地點에 就하야 五個年繼續事業으로 調査할 意向인데 此에 必要한 豫算은 少하야도 三、四十萬圓을 要할으로 來年度는 到底히 實現하기 困難하리라 觀測되나 右調査의 結果를 推察하는바에 依하면 前記十一個地點에서 五六百萬馬力의 電力은 넉넉히 得하리라더라

安平間大野에 水利速成歎願
千八百餘名聯署로

平南安州平原間에 介在한 乾畜二萬町步와 未墾地弗町步의 大平野는 一大農業地帶로 收穫이 또한 莫大하나 年年襲來하는 大旱災로 恒常被害가 莫甚한 形便인바 此平野로 말하면 東南部는 連山이 起伏하야 水源을 涵養하며 西北에는 四時不渴하는 淸川江이 잇서 此를 利用하면 現在收穫의 三倍增加가 確然함에도 不拘하고 民間의 金力으로는 到底히 水利計劃이 不能한 形便인바 今番國營으로 前記平野에 水利事業을 速成하여주기를 七月二日附로 安州郡安州面康系寬外千八百十七名名義로 平南道當局에 歎願하엿다더라(平壤)

鳥保面所移轉問題로
五洞區長總辭職

盈德郡鳥保面所移轉問題는 年來宿題로 잇든바 今年에 와서는 數次나 面協議會가 잇서서 面所를 移轉하자는 議論이 沸騰하야 或은 鳥保洞으로 或은 下渚洞으로 或은 富浦洞으로 移轉하자는 議論이 紛紛하든바 面長과 郡當局에서는 三溪洞에다가 新建築하자함으로 富浦以南面協議員及五洞區長들은 날하기를 民願과 面中央位置는 생각지 안는다는 意味下에서 以上五洞에 잇는 任員들은 總辭表를 提出하엿다더라(盈德)

女子新星會
江景에서 創立

七月二日午後八時 江景本町德游亭에서 女子新星會創立總會가 開催되얏섯는데 近百名의 會員들과 五百名에 넘치는 參觀者로 會場은 立錐餘地가 업섯고 警官의 嚴重警戒下에 民友樂隊의 瀏喨한 奏樂으로 開會된後 會員點名을 마치고 發起者代表李道別禮嬪의 意味深長한 趣旨說明이 잇고 臨時議長李道別禮嬪氏와 書記李信愛氏가 選擧된後 宣言綱領과 規約을 通過하고 委員選擧新事業諸決議等과 京城中央總本部江景無產靑年會同盟其他各地方에서 보내준 三十通의 祝文을 朗讀한後 李信愛氏伴奏로 金巴平氏獨唱 崔仁興 朴永鎬兩氏의 提琴獨奏와 北極少年團의 淸雅한 合唱이 잇슨後 午後十一時半에 江景未曾有의 大盛況으로서 閉會하얏다더라

△綱 領

一、男女平等의 人權本位로 新社會의 建設을 理想하고 女性解放運動에 努力을 期함
二、階級意識을 促進하고 一般社會上女性大衆의 福利를 圖함

△委 員

執行委員長 李道別禮嬪 庶務部 林輔元 金央姬 辛喜淑 金巴雨 教養部 李信愛 白信永 沈東淳 事業部 李英淑 趙賢淑 金正化 朴桃紅 音樂部 李信愛 朴聖心 金鳳姙 體育部 金奉順 金小汝 社交部 金福姬 嚴玉珠 韓德敬 張順成(江景)

男女靑年雄辯
盛況으로 終了

慶南馬山에서는 男女靑年雄辯大會를 當地靑月會主催와 東亞時代朝鮮馬山三支局後援으로 開催한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預定과가티 去四日下午八時 當地俱樂部會館에서 李鳳壽氏司會下에 開하고 十餘名의 演士는 順序를 따라 大獅子吼를 吐하여 場內場外에 立錐의 餘地가 업시 大滿員이엇고 聽衆의 拍手와 警官의 注意中止는 兩兩交錯하야 聽衆의 緊張을 煩하얏는데 金宗信 呂淑雨兩氏의 總評이 잇슨後 同十二時에 閉會한바 演士와 演題는 如左하다고

△演士와 演題

安昌濬君 삶을 찻자
實守龍君 失業問題解決에 對하야
姜 祿君 내가본 女性
李光海君 少年解放은 언지!
金國烈君 子女의 就學을 勸告함
朴魯台君 朝鮮의 死活과 靑年의 覺醒

合成夜學盛況

沃溝郡瑞穗面馬龍里盧東治氏는 同里에서 生活難으로 入學치 못하는 無產兒童들의 彷徨함을 遺憾으로 생각하고 昨年九月九日을 機會삼아 自宅에서 合成夜學을 設施하고 生徒를 募集하야 無報酬로 敎授하여오든中 生徒數가 날로 增加하야 至今하야는 男女合六十餘名에 達하며 義務敎員은 如左하더라

盧民湜 盧鎬述 盧東根 盧東洽(群山)

鐵原七團體
第二聯合委員會

鐵原에 잇는 鐵原 鐵城 五一無產 四靑年會及勞働會 少年會 衡平社等七團體에서는 去三日下午十時부터 第二回聯合委員會를 鐵城靑年會館內에서 鐵城委員李鍾仁氏司會下에 開催하고 旣報西鮮水害救濟會去處調査의 件에 對하야 調査委員尹禮重氏의 調査報告가 잇슨後 處理方法에 對하야 左와 如히 決議하고 同十一時二十分에 閉會하얏다더라

一、救濟金이 尙今送達되지 아니하는바 當時現金保管者인 崔成鉉氏에게 通告文을 發送하야 現金引渡를 바들事
一、右에 對한 事實顚末을 市民大會를 召集하야 一般人士에게 詳細報告할事
一、一般處理事務執行에 對하야 委員二人을 選定할事 當選代表委員 尹禮重(鐵原)

靑年의使命 吳海井君
將來社會를 떠나난 遺憾은 업다 金貴東君
取引所와 中產階級의 沒落 尹烈君
(馬山)

東幕下里의 幼年蹴球大會
東亞體育部主催

市外東幕下里에 잇는 東亞體育部主催와 時代東亞及本社三社支局後援下에 例年과가티 來十八日午前八時부터 同里龍江公立普通學校校庭에서 第二回幼年蹴球大會를 開催한다는바 昨年第二回時에 參加하엿던 團體는 勿論이요 其外의 團體도 多數히 參加하기를 바란다더라(高陽)

派爭에 沈滯되는 南鮮貿易會社
◇……前途를 悲觀

全南筏橋朝鮮人의 貿易機關으로 維一이든 南鮮貿易株式會社는 創立當時로부터 大株主中朴士勵氏一派와 蔡重鉉氏一派가 對立하야 社長椅子다툼으로 자못 그 會社는 風雲이 개일날이 업더니 社長朴士厲派中常務取締인 許還君의 不正事實이 綻露됨을 따라 朴派의 暗中飛躍은 고만 水泡에 歸하고 恒常機會를 엿보든 蔡重鉉氏는 社長의 椅子를 占領하든 即時 株主에게 該社第二回拂込을 斷行케하고 釜山支店을 撤廢하는 同時 鐵廠되얏든 該社事務를 整理한다는 口實下에 該社創立最初精神을 無視하며 株主의 反對함도 不拘하고

日本人

村上某를 社員으로 採用함에 一般株主及社員間의 不平이 적지안은바 已爲社退하얏든 前記朴派와 提携하야 社長蔡重鉉 取締役兼支配人金永敏氏가 다시 氏를 不信任하는 同時 潮利爭이 再起되야 서로 自家의 基盤을 鞏固키爲하야 社長蔡氏는 日人村上某로 外日人株主를 蒐集하고 前記金朴는 專務取締役李秉韶氏外몃株主와 連絡을 取하야 暗鬪를 하든中 畢竟金朴派는 敗北하고 蔡派가 勝利하는 同時

前記日人

村上某는 常務取締役이 되야 同會社의 全般權利를 掌握한지 二個年이 못되야 今番決算에 多大한 損害만 잇고 何等의 進就性의 업슴으로 一般株主는 戀慘에 걱지안흔바 突然히 今番蔡重鉉氏가 社長을 辭職하고 自己擁護派中第一有力者徐和日氏를 社長으로 推戴하얏슴으로 一般은 매우 疑訝하든中 新社長徐和日氏가 赴任하든 即時 短刀直入的으로

同社營

業科目을 縮少하고 同社事務所와 附屬建物等을 全部賣却하는 同時 社員半數以上을 減少한다고 하는데 그 事實를 探聞한바에 依하면 그 會社創立資本金이 三十萬圓이든것을 前不景氣와 黨派的反目으로 沈滯되야 五六萬圓의 損害를 보게됨으로 二十一萬圓으로 資金을 縮少하고 二回拂込을 하야 僅僅히 維持하여오든바 若干資金은 固定이되고 融通資金이 업슴으로 하는수업시 縮少를 斷行한다고하나 其裡面에는 엇더한 複雜한 事實이 潛在한듯하다하며 一般株主와 一般商業家는 매우 注目하며 前途를 매우 悲觀한다하더라(筏橋)

啄木鳥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後日을 爲하야

◇우리 朝鮮의 經濟的 破滅을 새삼스러히 嘆嘆함은 오히려 愚論이다 우리는 오로지 破滅에서 更生으로 破壞에서 建設의 길로 轉換할 氣槪를 갓지 안으면 안될것이다

◇習慣으로나 러온 遊戲나 娛樂이 엇더한 便으로 생각하면 조흔때도 업슴은 아니나 大體에 잇서서 弊害도 만흔것은 事實이다 더구나 農業上으로나 生活上으로 支障을 이르킬 모ー든 遊戲나 娛樂은 一日이라도 速히 廢止하지 안으면 안될것이다

◇鞦韆과 脚戲가 五月端午나 八月秋夕에 擧行되야도 特別한 利益이 잇다할수업는터인데 하물며 盛夏農期上重大한 時期에 此를 開催하면 農業에 支障이 될뿐아니라 暑氣로 因하야 身體에 害도 올것도 事實이다

◇今番義州郡光城面彌勒洞에서 擧行하는 脚戲와 鞦韆大會는 여러가지로 보아서 害가 만흔것으로 그 主催者諸君에게 一言으로 反省을 促하는바이다 이러한것을 主催할때에는 반드시 한번 깁히 생각할 必要가 업슬가

◇첫재로 農業上繁忙한 때이니 不可할이요 둘재로 暑氣로 因하야 一般衞生上으로 害가 잇고 셋재 旱災도 근심이 만흔때이엇스니 精神上惡感을 주엇슴이 不可함이요 넷재로 그 場所의 關係로 風紀上弊害를 주엇스니 遺憾이오 다섯재 私慾한 아무 뜻뜻한것 업는 彌勒洞으로서 三四百圓의 巨額을 虛費한다함도 지금 우리의 處地로서는 贊成못할바이다

◇이와가티 時期와 處地가 得치못함에도 不拘하고 幾個人이 一種虛榮心으로 因하야 脚戲會開催를 斷行한것은 엇더한 意味로던지 贊成할수업다 事後에 이르러 이러한 論評이 아모 效用이 업다하겟스나 後日이라도 이러한 大會를 主催할이에 參考가 될가하야 敢言을 드리는바이다(新義州朴白田)

北極少年團 緊急委員會

江景北極少年團에서는 七月四日午前十二時 中町同團事務所에서 緊急委員會를 開催하고 左와 如히 決議하엿다고

△決 議

一、七月四日發行東亞日報地方 短評記事에 對하야 江景支局에 質問할일
二、團體가 無根인 事에는 當然謝罪書를 紙上으로 發表할일
三、五日以內에 該短評을 取消케 할일(江景)

群山幼兒院
維持後援會

旣報=群山幼兒院을 維持키爲하야 地方有志를 網羅하야 後援會를 組織키로 發起한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其間準備委員諸氏의 不斷한 努力으로 諸般準備를 마치고 去四日午後四時頃에 同院內에서 南譲氏司會下에 發起人總會를 열고 諸般事項을 議決하고 同五時半에 閉會하엿다더라

創立總會

別項과 如히 發起人總會를 마친後 同六時에 創立總會를 열고 議事를 進行한後 同九時에 閉會하엿다는데 選擧任員과 決議事項은 如左하더라

△任 員

會長 車相根 總務 白南祺 會計 趙錫九 評議員 金彰漢 金瓊得 李源衡 李重甚 金供斗 金達鴻 金顯俊 李根永 朴元逸 崔鎭八 崔鳳國 崔益 金弼洙 韓寅燮 田世昌 監査 梁桂廈 李根三

△決 議

一、基本金確立準備에 關한 件
一、維持方針에 關한 件
一、會費徵收方法에 關한 件
一、會員募集에 關한 件
一、其他事項

其他事項에 入하야 婦人敎育會와 妥協한後 院一人을 選擧하기로 하고 即席에 吳基泳氏가 被選되얏다더라(群山)

江景民友總會

變祭의 禁止로 하야 不得已延期되얏던 忠南江景民友會의 第五回定期總會는 七月一日午前十一時에 樂隊의 奏樂으로 綿町彩雲山亭에서 開會를 한後 會員點名을 마치고 崔鳳宇氏司會下에 經過報告 豫算編成 委員改選을 行하야 後 宣言綱領의 起草、運動會開催、喪禮購入等에 關한것은 委員會에 委託하기로 決議하고 午後三時頃에 無事히 閉會하엿다는데 選擧된 委員은 左와 如하고

△委 員

委員長 宋秉直 庶務部 崔鳳宇 朴魯璽 社交部 林益化 吳昌達 儀禮部 邊相烈 梁守賢 體育部 章正燮 音樂部 朴容國 敎養部 梁鶴井 韓仁興 經理部 元貴奉 李奇甫 常務委員 趙烈 査定委員 金東先外四人(江景)

來年度 馬山土木事業

來十六年度慶南土木課事業中馬山上水道와 市區改正案內容은 如左하다고(馬山)

(一)上水道敷設工事
總工費 四十五萬圓 年期 四箇年間
國庫要求額 二十二萬五千圓
(二)市區改正(新舊馬山)
總工費 十二萬圓 年期 三箇年間
國庫補助申請 四萬五千圓

迎日靑聯委員會

北浦項迎日靑年聯盟에서는 지난三日午後六時부터 迎日靑年會館에서 常務委員會를 열고 지난五月中에 開催하려던 聯盟主催第二回慶北蹴球大會가 國喪으로 因하야 無期延期되여오던바 該大會를 七月三十日三十一日兩日에 開催하기로 하고 今回에는 各地有志의 企望에 應하야 特히 個人庭球大會의 詳細를 지錄하기로 하되 庭球大會外는 追後發表하기로 하야 細胞團體代表委員에게 周議하기로 決議하고 同九時에 閉會하엿다고(浦項)

仁川少年會 童話會盛況

內里禮拜堂에서 仁川少年會創立二週年紀念童話會는 지난五月午後八時부터 仁川內里禮拜堂에 開催하엿는대 入場者가 無慮五六百名에 達한 大盛況을 일우엇섯다 金惠振君의 司會로 陳雨龍君의 經過報告가 잇슨後 仁川勞働聯盟靑年聯盟及濟物靑年會又는 學修少年會等各團體의 祝辭가 잇섯스며 孫啓彦 高遇兩氏의 童話가 잇섯다고(仁川)

波瀾重疊한 高敞高普內情
愛校의 至心으로 全社會에 公開한
校員一同의 聲明書全文(二)

風潮는 더욱 漸漸擴大하야 各處에 散在한 評議員及理事는 모여서 此事善後를 解決하야 好工夫하기爲하야 달라고 懇情키爲하야 出張하엿다 午後에는 在來여러가지로 本校에 對하야 關心이 有하는 本郡郡守

徐丙周 氏가 警察署長과 本郡庶務主任과 한가지로 突然히 本校를 來訪하야 私宅에 잇는 敎員一人과 理事一人을 請하야 親切히 調停의 勞를 取하면서 明日부터 繼續授業하기를 懇請하엿스나 이미 辭職을 受理한 側에서는 何等의 一言이 無하오므로 敎員一同이 懇請에 應하지 못하엿다

이에 憂害를 主張하든 許議員들은 意外에 如斯히 事態가 重大하여짐을 보고 自己들에게는 導火線의 責任이 無하다하고 東飛西散하고 말엇다 翌十九日에 敎員一同은 生徒一同에게 告를로써 最後의 告別을 하고 말엇섯다

徐郡守調停과 全責任自負한 誓約한 顚末

事態가 이러케 됨에 不時에 出張한 郡守는 早朝에 各其部隊를 불지어 遠近을 不拘하고 雪裡에

如斯히

一二日을 徒過하는中에 生徒等이 任員을 請求하고 郡守는 本校內務部長의 代理라는 名義로 此等의 任員及地方의 有志와 連日懇談會를 繼續하엿스나 何等의 良策이 無하고 다만 吾等에게 授業만을 請하엿다 그러나 吾等은 永久的解決을 보지못하고 如斯한 一時彌縫策에는 滿足할수업다고 斷絕하는 同時에 速히 他敎員을 招聘하야 授業하도록 忠告하엿다 이에

徐丙周

氏는 敎員側에 向하야 如何한 條件이면 滿足하겟느냐고 再再三 무럿슴으로 當初에 吾等은 經營者側이 알일이오 何等의 相關이 업는바가 아니지마는 徐氏의 親切과 周旋에는 늣긴바잇서 二個條件을 提出하엿든바 其條件에 對하야 如左한 誓約書를 吾等에게 提出하엿다

◇誓約書

今般職員諸氏의 提出하신 左記兩項의 修案에 對하야 來二月五日以內로 具體的成案을 提出하기로 茲에 誓約함

△左 記

一、本財團의 基本財産을 擴大히 할事
一、本校任員은 敎職員의 人格을 尊重히 하며 學校經營에 理解가 有한 人士로 選任할事

大正十五年一月二十三日
財團法人高敞高等普通學校 理事長 吳大湜 同 李鍾昇 同 吳漢洪 同 洪鍾轍 評議員代表 李鍾烈 調停人 徐丙周
高敞高等普通學校職員 貴中

如斯히 事實이 進步됨에 따라 吾人은 依賴할곳이 無한 生徒들에게 同情하야 一月二十五日부터 個人의 資格으로서 授業을 繼續하는中에 徐丙周氏는 自己의 責任을 더욱 分明히 하기爲하야 右誓約書에 依한 元財團에 增加할 十萬圓中三萬五千圓은 理事에게 其餘六萬五千圓은 財團成立當初未收寄附金十二萬圓中에 爲先六萬五千圓만 實任을 지고 徵收하야 十萬圓增加의 任務를 다하겟다고 言明하얏나니 同時에 左記와 如한 連帶實任의 具體案을 吾人에게 提出하얏다

◇…案…◇

一、本財團의 基本財産을 擴張하는事 現在財團의 總額約二十萬圓에 그 五割을 增加하되 其中一割七步五厘即參萬五千圓은 理事가 此를 負擔하고 三割二步五厘即六萬五千圓은 寄附金으로서 此에 充當할事 但寄附金徵集期限은 本年九月末日外지로 함
二、本校任員은 敎職員의 人格을 尊重하고 또 學校經營에 理解를 有한 人士로서 選任할事 理事는 一層自省하야 從來의 態度를 高치고저 決心하고 監事及評議員은 本月一日附로 改選하기로 함

大正十五年二月一日
財團法人高敞高等普通學校 理事 楊富安左衛門 吳大湜 李休烈 吳滋琪 洪鍾轍 白寬洙 徐丙周
高敞高等普通學校職員 貴中

富川松虫驅除

富川郡當局에서는 山林獎勵의 莫大한 障害物인 松虫을 撲滅하기爲하야 그 驅除方法을 講究하여오든바 特히 今年에 入하야는 或은 一般賦役的으로 又는 各山主의 責任的으로 그 驅除를 實行케하며 各面에는 面經費로 驅除를 實施케하야 各樣의 方法으로 努力한 結果 除虫의 成績이 殆히 良好하다는바 同郡多朱面의 成績을 擧하면 七月一日부터 八日間을 두고 驅除한 石數가 三十有餘石에 達하엿는데 今後에도 繼續하야 全部撲滅한다고(仁川)

群山二十七週紀念

旣報=去五月一日은 群山港開港二十七週年紀念이던바 國喪關係로 延期되엿음은 旣報한바어니와 本月四日當地平和園主催로 公立普通學校廣場에서 市民大會를 열고 各種競技와『奕碁』競技로 午前의 大盛況을 이루엇고 優勝者에 施賞한後 午後六時半頃無事閉會하엿다더라(群山)

龍川庭球大會

平北龍岩浦에서는 年來로 龍川庭球大會를 開催하여오던바 今年에는 同會幹部側으로부터 全責任을 當地龍岩靑年會에 一任한다는 通知가 有하얏슴으로 前記靑年會에서 去三日下午三時頃에 委員幾人이 同會事務所에 會集하야 相議한 結果 今年에는 本月三十日三十一日兩日開催되리라하며 詳細한 事項은 後日다시 發表하기로 하엿다더라

◇三岐公普紀念庭球 北靑郡泥谷面三岐公立普通學校에서는 近日庭球코ー트를 新設하고 該庭球場設置記念競技를 去三日에 行하얏다고(三陟)

●無產靑年同盟硏究發表 忠南江景無產靑年同盟에서는 思想에서 난 思想의 純化가 科學의 智識을 敎養하고저 每月硏究會를 開催하야 社會經濟政治의 諸問題를 考審硏鑽한다는바 지난七月三日午後九時부터 本町德遊亭에서 左와 如한 演題로 硏究發表가 잇슨後 午後十二時頃에 閉會되얏다고

社會改造가 朝鮮人의 使命 朴容國
世界勞働運動과 朝鮮 金星園(江景)

●廣州中央靑年會創立 京畿道廣州邑에서는 몃몃 有志靑年의 發起로 今月三日에 廣州中央靑年會創立總會를 開催하고 六十餘名의 會員이 出席하야 朴𡋏煥氏開會辭가 有한後 諸事項을 決議한後 左記任員을 選定하얏다더라

△任 員

會長 全興文 副會長 朴𡋏煥 智育部長 林炳鉉 德育部長 任致宰 體育部長 金麟培 產業部長 金廷鎬 幹事 池榮紡 禹鍾儀 李倬 石日均 金容哲 朱舜儀 李致憲 金正雨 書記 金泰熙 李福永 會計 金壽鉉 朴常熙(廣州)

●善山靑年總會 善山靑年會定期總會는 去四日午後三時當地普通學校內에서 金鍾漢氏의 司會로 議事를 討議進行하얏다는데 決議案及改選된 執行委員은 如左

△決 議

一、規約改正의 件 一、委員選擧의 件 一、會員增募에 關한 件 一、會維持方針 一、其他重要事項

△執行委員

常務執行委員 金鍾漢 庶務部委員 南海旭 金鍾漢 敎養部委員 金晉煥 李光憲 調査部委員 金世林 洪太楠(善山)

◇仁川署長赴任 京城西大門警察署長으로 在勤이든 石橋利助氏는 今番에 仁川警察署長으로 轉勤되야 지난六日午前十時三十三分上仁川着列車로 官民多數歡迎裡에 赴任되엿다고(仁川)

◇馬山納涼展覽會 馬山에서는 日文南鮮日報五千號紀念事業으로 來八月一日부터 二十二日外지 三週間 馬山納涼物產展覽會를 開催할터이라는데 會場은 第一會場은 馬山尋常小學校舍를 第二會場으로 馬山驛前海岸을 使用하고 各種運動競技와 餘興도 잇스리라더라(馬山)

地方經濟

元山對日貿易

元山港에 六月貿易中對日本輸出入貿易은 輸出合計五十九萬八千六百八圓이엇고 輸入合計百十九萬六千五百四十五圓이엇는바 重要輸의 內容은 如左하다고(單位圓)

【輸出品】

米及籾	二九四、二八二
大豆	一七三、〇八六
魚類	四一、八一七
牛皮	一、〇〇〇
黑鉛	一七、三〇八
石炭	一八
牛	五、三〇〇
木材	五、九八〇
肥料	二二、八八二
其他	三六、九三五
合計	五九八、六〇八

【輸入品】

米及籾	一、一二三
小麥粉	三七、七〇五
砂糖	一五、二七九
淸酒	二五、六二
麥酒	一五、九五八
爆發藥	三七、五〇〇
燐一寸	四、八五二
綿絨及打綿	三、六〇〇
綿織絲	四、七二五
生金巾及晒ツーシング	一三、六三三
天竺布	一三、六三三
白木綿	五、三一四
絲及綿木綿	二、二〇五
仁期及綾金巾雲齊布	一一、四一三
毛蘿物	七、三〇一
漁網	三三、三八九
印刷料紙	四、八八九
其他紙	四、八六六
石灰	一三、六五〇
陶磁器	一三、九五八
鐵條竿及板	一三、八二三
鐵電鍍板	一三、五二五
鐵管及管	四、二五二
鐵釘	一二、六五七
鐵道建設材料	一二八、五七〇
機械類	一七九、四三六
木材	九、二六二
肥料	五一〇
小包郵便品	二八、八一三
其他諸品	三五二、九三〇
合計	一、一九六、五四五

(元山)

三港外貿易全無

六月中元山稅關支署管內指定港의 貿易은 新浦港의 輸出三萬五千一百六十八圓、移入三千六百六十九圓 西湖津港의 移出二萬九百二十圓 移入二萬二千九百十一圓、新昌港의 移出二萬九千六百七十圓 移入三萬二千九百五十六圓、總計金額이 十四萬五千二百九十一圓인데 右三港以外의 指定港은 貿易이 全無하엿다더라(元山)

六月中驛貨

元山 元山驛의 六月中貨物成績은 發送總收入四萬五千五百四十九圓十七錢 發送總噸數八千八百二十九噸 到着總噸數八千二百四十四噸 十圓九十三錢 發送噸數九百二噸인데 前月에 比하야 收入三千八百이 增加하엿고 到着噸數二百五十八噸이 減하엿다더라(單位噸)

(發送)=鹽魚九九一 乾魚三一三 海藻二九四 粟九三二 雜穀五〇 鹽一八〇 木材五二三 石炭八二 세멘트一一六 金屬一〇四 軍用品一一三 局用品二一〇六 其他二〇八二 合計八八三九

(到着)=米九一四 粟一一四〇 大豆三三五 雜穀六〇 鹽二四〇 乾明太三九 細叺一八二 刻煙草一五六 木材一六八 薪炭三二五 세멘트二一〇〇 黑鉛四八〇 馬一〇 軍用品九〇 局用品三五六 枕木一六〇 石炭三四〇 其他一一四九 合計八二四四(元山)

人事消息

▲金炳鍊氏(鴨綠江河川整理期成會長) 陳情事務를 畢하고 上京中이든바 用務를 마치고 六日夜에 退京
▲李昶俊氏(同上幹事) 同上

◇寸 鐵◇

◇【沃溝】 米面米龍里에서는 土地를 抵當하고 農牛를 買掉하야 普天敎에 金錢을 提供한者들이 잇다한다 近日에도 이따위가 엇나 참 稀怪

◇【全州】 全州高普校某先生은 學校의 宪偵嫌疑로 毆打當한 學生을 告訴하라고 敎唆하엿다고 그러케 가르치는것은 日敎唆家

◇【新義州】 宣川某物南耶蘇敎會主務兼所屬學校校長某는 著姦問題로 一般이 非難한다고 十誡銘第七節은 削除되엿貌樣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Wednesday, July 7th, 1926.

WHAT'S WRONG WITH THE UNITED STATES?

By L. Y.

VIII

"Mene mene tekel uyharsin" America's isolation policy has been weighed in the balance and found wanting. As man cannot live unto himself, neither can nations do so. To teach people to worship only that which is good in their own country to the detriment of other people's virtues, to instill American ideals first last and all the time, does not make for character. To force to an unfair degree payment of war debts by war ravished countries, who for two and a half years bore the brunt of a hellish war, and then to refuse to accept the responsibilities of assisting in reconstruction, springs not from hearts that beat with sympathy and understanding.

The writer may seem relentless in his criticism, in that he has points out the weak spots in the Americans' armor, and the good points of British character. He is not so prejudiced to think that the Britisher can do no wrong, for he has seen what Britishers have been doing in China of late years. But there is one fact he cannot get away from and that is, that the Britisher can talk of freedom and liberty without linking it in terms of his native land like most Americans are so fond of doing.

英文欄 米國印象 (八)

002077

普通學校擴張案과 京城府當局의 腹藏

확장을빙자하야부민의경제는불계하고 멧백만원의학교비만들리고자계획한다

誠意잇는態度를明示하라

경성부(京城府)에서는지난구년으로부터 십이년까지를 일긔로 십삼년으로부터 십오년 까지의 긔한을 데이긔로 부내각공립보통학교(各公立普通學校)를확장 하야왓스나 금년에도 시내학령아동(學齡兒童)의칠할오분오리 이상을 수용하지못하야 자못사회문데의 한아로 중대한문데가 되여왓섯는데 금번 경성부에서는 십륙년으로부터 이십년까지 오년이라는 긔한을두고 데삼긔공립보통학교확장(第三期公立普通學校擴張)계획을 세운후이에대한 구데뎍성안을 작성하야 그실행의 첫거름을 옴겨노라고 하야먼저이에대한의견을참작하고자륙일오후 네시에 부협의원(府協議員)일동과 학교평의원(學校評議員) 학교조합의원(學校組合議員)일동을 경성호텔에 초대하야 이에대한 성안을부윤(府尹)이 발표한후 각위원의의견을듯기 시작하엿는데 문데는 예산(豫算)에 들어가 부당측에서 확장예산(擴張豫算)일백삼십오만구천일백삼십사원을권부조선인학교비(學校費)에충당할복안을 가지고 예산을세웟다 고함이잇나자 한성은행두취(漢城銀行頭取) 한상룡(韓相龍)씨 를비롯하야 리범승(李範昇)씨 등수씨의 반대의견의 진술이거 듭되며 이부당한 복안에대하 야 그러한 성안을버리고국비(國費)로부터 보조를밧자는의견이 일본인측에서까지라도 이구동성으로 국비보조안(國費補助案)에대한 찬성을 하엿스나 부당국의괴정 밧침인만큼 이에대한 부당국의 태도가 강경하야 용이히문뎨가 쯧나지 아니하엿슴으로 이문데 에대한묘사긔관(調査機關)을설 치하고 상당한묘사를 마친후안 을작성하자하야 이에대한 부의 (附議)의일단락을고하고즉시권 긔묘사긔관의 위원을 부윤으로 부터 선뎡케한후 회를마치엿다 는데 문데는자못세인의 주목을 끌터이라더라

『國庫補助를밧자』

부민부담만가혹히말고

學校費評議員李範昇氏談

권긔문데에대하야 확장비를 국비로부터 보조를밧자고의견을 진술한리범승(李範昇)씨는다음 과가티말하더라

학교를 확장한다는데 대하야 물론 다른의론은 업습니다마는 예산을 학교비로만충당하 고자하는 부당국의 복장을알 수업슴니다 예산절반은 부민 이 부담하고 절반은국비로충 당함이 가장온당한 방법일것 갓슴니다현재교육비(敎育費) 의오할오분을 국비로부터 보 조를하며 현재부내 일본인측 학교조합(學校組合)에도일할 이분이상의 국비보조가 잇는 터에 조선인측에는 륙분륙리 이외에 보조가업슴니다 이러 한 것은보조를 바드면서더욱 확장비를 부민에게 부담식힐 다는것은 아모리 선의로리해 하라고해도할수업슴니다

阿峴里民 慰安活動寫眞

칠일밤에개최

시외아현청년회(阿峴靑年會)에 서는지난이,삼,사삼일간리민위 안활동사진회를 개최하랴고 한 다함은 이미보도 한바어니와그 간우텬으로인하야 연긔 하엿섯 는데칠일오후여덜시부터서대문 외(西大門外)아현소방조 (阿峴消防組)구내에서 권긔 활동사 진회를개최하고 일반에게 국장 의영화(國葬映畫)를소개할터 이라하며회비는십전이라더라

橫濱에上陸한 怪露人夫婦

경시텽에서엄중취됴중

當局은其處置를考慮

지난오일횡빈(橫濱)에상륙한노 국인(露國人)해항극동대학교수 (海港極東大學敎授)『스카버후 도』(氏)씨와 그의안해『나다리 아』(氏)는 본국정부의려권(旅 券)을갓지안코중국정부(中國政 府)의려권을가지고 오기때문에 목하 동경경시텽외사과(東京警 視廳外事課)에소환되야 엄중한 취됴를 밧는중이라는바최근쏘 베트정부에서는 각국관헌의눈 을속이여다수히선전원(宣傳員) 을무적자(無籍者)로변하야외국 에파견하는 사실이 빈빈함으로 경시텽(警視廳)에서는동인등의 신변을의아히 생각하고 중대사 건이라하야 내무성 (內務省)과 외무성(外務省)에서는협의하야 그들의처치에대하야할바를고려 하는중이라더라(동경)

中央校도 生徒處分

퇴학과뎡학의 칠개조방법에나누어

륙월십일만세관계학생에게대한 문데로 경긔도학무과(京畿道學 務課)에서는 학교당국자를소집 하야 관계학생들에게 상당한처 분을하라고 엄명하엿다함은 이 미보도한바어니와 이에 의하야 지난오일부터 중동학교(中東學 校)협성학교(協成學校)에서 관 계자일곱명을 처벌하고 휴업에 이르더 중앙고등보통학교(中央 高等普通學校)에서는 현재긔소 중에잇는 네명에게 퇴학을명하 는동시에 긔소유예된학생 일곱 명에게는 무긔뎡학을시킨후 그 남어지 이번에관계한날병의 학 생중세명에게는삼수일과일곱명 에게는일주간유긔뎡학을당국의 명령대로각각어엄하엿다 더라

警告文發送

허시모에게

매일련하야 신문지상에 보도되 는 허시모만행사건에대하야 경 의선만세소년회(京義線萬歲少年會)에서는 그대책을 연구하기위하 야 오일삼일오후구시부터 본보 만성분국에서 림시총회를열고 토의를하엿는데 허시모에게 경 고문을 발송하기로 하고 열시반 에 폐회하엿다더라(만성)

各處를搜索後 書類等多數押收

그러나중요서류는아닌듯

明倫講習所事件後報

루보=황해도 안악 명륜강습소 (黃海道安岳明倫講習所)사건에 대하야는 본보에 루보한바어니 와 지난일일에 강사사씨가해주 디방법원 재녕지텽 검사국으로 압송을 당하야 재녕검사국에서 취됴를밧든중 삼일오후에 재녕 지텽안뎐검사(安田檢事)가안악 에 출장하야 사일아침부터 안악 경찰서 서원의유원을 어더가 지고 명륜강습소사무실과 향교 (鄕校)와모모(某某)학생의집과 압송된 강사의집과 숙소등을수 색하는 한편으로 명륜강습소소 장최호창(崔鎬昌)씨와향교직원 (直員)리병옥(李秉玉)씨를오전 열시경에 소환하야 공산주의(共 産主義)선전하는것을 못보앗는 가하며 여러가지 신문이잇슨후 송환하고 오후두시경에는 안악 청년회관(靑年會館)안에잇는사 상단톄 명성회(明星會)와 소년 군영(少年軍營)에 검사이하 수 인의 경관이가서 명성회의규약 등을찻다가 못찻고 소년군영의 문부(文簿)만압수하여가지고또 텬도교(天道敎)안에 잇는 명륜 강습소로가서 역시 수색을하엿 다는데 다소압수한것이 잇스나 중요서류는안인듯하더라(안악)

◇姜氏拘引‖안악명 륜강습소사건에 대하야는 별항 보도한바어니와 이사건과 관계 인지는 알수업스나 재녕지텽검 사가 안악에출장함을따라 지난 사일에송화(松禾)에잇는강제모 (姜齊模)씨에게안악서에서구인 장을발하야 송화 경찰서에서는 즉시 강씨를구인하여 오일내로 안악에압송하여왓더라(안악)

豐山安水面所 職員排斥運動

면민대회를열고

함남풍산군 안수면(咸南豐山郡 安水面)에서 지난륙월오일에당 디청년 십여인이모히어 면직원 에대한 비행을 군당국(郡當局) 에 탄원투서(歎願投書)하고 또 지난륙월이십일일에 김병하(金 秉河)강석락(姜錫洛)김국현(金 國鉉)리원모(李元模)리응규(李 應奎)김상호(金尙浩)제씨의 발 긔로 면민대회를개최하고 모직 원에대한 유부녀간통사건을 토 의하려하자 림석하얏던 경관으 로부터 남의명예(名譽)에 됴 치못한즉 정지하라함으로 부 득이 정지하고 다시또다른두명 의직원에 대한 구장(區長)의 출장비횡령과 사유림으로 면유 림이된것을 긔회로역여 그재목 을팔어 사복(私腹)을 채운놈믄 케가 이러나서 이러한면직원을 그냥둘수가 업다하야 해사건처 리에대하야집행위원(執行委員) 아홉사람을 선거하고 산회하엿 던바 그후집행위원이 묘사한결 과사건은 컨컨확대되야 면사무 소내의 불미한 취사가드러나는 중이라더라(북청)

慘死學生校葬

고창고보교에서

고창고등보통학교 데이 (高敞高等普通學校第二學年)김상 권(金相杰)(一九)는성적 도 량호하든바 지난일 원에 수업하다가 [illegible] 어생켓슴으로교의리세종(校醫 李世鍾)씨가 극력치료하엿스나 효험업시 삼일오전한시에 무참 히사망하엿다는데학교에서는교 원일동을 위시하야 생도전부가 상여(喪輿)를메이고그곳공동묘 디에안장하엿다더라

拘引狀을發하야 病中生徒를檢束

갈수록그처치가가혹한 全州警察의態度

루보‖파면발생된 전주고보교 (全州高普校) 사건에대하야 전 주경찰서(全州警察署)에서는수 모자(首謀者)로 지칭되는 학생 을다수검거취됴중이라함은긔보 한바와갓거니와동서에서는다시 동사건이 발생되기전에 충북련 산읍내(忠北連山邑內)자긔집 에가서 요양중에잇던 삼년급갑 조급장문윤화(甲組級長文潤和) 를데포키 위하야 론산서(論山 署)로구인장(拘引狀)을 발송한 결과 즉시포박압송(捕縛押送)을 하여다가 엄중히취됴를 하엿스 나 동사건과는 하등관련이업서 즉시석방 하얏다는데 동서의가 혹한처치에 일반의비난이 매우 놉다더라(전주)

旱騷가나흔 殷山地方의 迷信的風說

◇개걸이가잇스면

◇산한흉년이든다

평남은산디방(平南殷山地方)에 는금춘이후로 한발이 계속한다 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지난 달삼십일에 은산읍내에사는 김 혁성(金赫成)이라는 사람이오 후오시경에 물을길러읍내 박윤 긍(朴允兢)씨집웅물에갓던바무 엇을보고 그런말을하엿는지는아 지못하나 여러사람들을보고지금 웅물에개걸이(속담에개걸이가 웅물에잇스면가뭄이계속된다한다) 가잇스니 가서잡아죽이지안흐면 은산디방에는 비가올리만무한 다고 다수한사람이달려가서잡아 죽이자고하야 아모것도몰으는농민은이것을신용 하고 달려가서혹은두레박으로 혹은동이로물을푸기 시작하야 동일곱시경에물을늘다푸고 사람이드러가서웅불안을묘사 하야보앗스나 아모것도업슴으로 헤여젓다는데 순천디방에는 비 가만히와서 모내기에흡족한이ᄯᅢ에은산만비가오지아니하야 더욱 마음을조리는 ᄶᅢ에그말을고지듯고일대소동을 일흥킨것이라하며 은산모유지는말하되 갈오대지금과가튼사회에 그와가튼말을 고지듯는 사람들이잇스니ᄭᅡ 가히탄식할바이라고하더라(은산)

流離의慘境에陷한 四千戶亢羅機業者

덕천군수가고처매입권을허락한것까지 취소를시켜가며삼십조에만특권을주는

平南道當局의態度

루보‖평남도당국에서일반잠 견상과 조선긔업가의 모든불리 한형편을 불고하고 일개회사인 삼십조(三十組)에평남잠견의독매 권을 주엇슴으로 평남도당국에 대한 원성이자못놉흘뿐더러 현 재일반긔업가에 막대한 피해를 내게한것은 컨차사실로써 증명 되어오는바 특히 일이삼등의잠 견을요하야만 직조되는항라(亢 羅)긔업자의만키로 유명한평남 덕천군(德川郡)일대의동긔업자 사천여호의 다대수는 삼십조가 조흔고치를 컨부삼으로 인하야 우리의손에서된 고치를 눈뜨고 ᄲᅢ앗겨 항라직조조차 중지상태 에ᄲᅡ저 이래서는 도저히동긔업 으로서는 생맥을 지탕치못하리 라하야 지난일일과 이일량일에 권긔항라긔업자의 대표로 약삼 백명가량이 덕천군텽에 상등고 치의일부만이라도 삼십조와 더 부러 공동판매에 입찰하게하여 달라고 진정한바 처음은한낫행 정만할뿐 직컨직조에 관계한바 업는덕천군수는 드믜권이라도주 듯이 그러면등외잠견을사서 항 라직조에 사용하나고함으로 컨 긔삼백명의 진정자들은 극구히 등외잠견의직조불능을진술하엿 는바이에덕천군수는 권긔항라 긔업자에게 삼십조와가튼매입 권을주엇슴으로 일반긔업자는 크게다행으로 잠견을 매입하든 중삼십조에서는 이것을 보고즉 시도당국에 덕천에서는 도뎌히 잠견을 매입할수업슴을 진정하 는동시에 커희의특권을 침해하 엿고 덕천군당국을 나물하엿슴 으로 도당국에서는 컨긔사천호 의항라긔업자의가중한상태를생 각함보다도 오히려 커희의리면 을유지하지아니치못할것과삼십 조를 특히보호하여야 하겟다는 의사이엇던지 덕천군수의 모처 럼의 호의를 컬폐식히고그대신 일반 항라긔업자를 생각한다하 야 시긔가다느진 오는이십일이 후로 공동판매에 입찰하기를명 하엿슴으로 권긔 덕천군일원의 사천호의 항라긔업자는 생활의 길을벌서일허버리고 처처에 류 리하지아니치못할 참상에 ᄲᅡ지 어도당국의커치를크게원망한다 더라(평양)

各地喜雨

◇安岳‖황해도 안악디방 (黃海道安岳地方)에는 지난삼 일부터 비가온다함은 긔보한바 어니와사일정오에는비가그치고 다시비가올가망이업는동향으로 지금까지온비로는도뎌히흡족하 지못함으로 일반은 더오기만바 란다더라(안악)

◇沃溝‖옥구군(沃溝郡)내 의이앙성적은 비교뎍 량호하나 물의부족으로 비가오기를 고대 하던중 지난삼일부터 사일아츰 ᄭᅡ지 비가계속하야왓슨결과 아즉 도우량이 흡족하다할수는 업스 나 결코비관할것은 안임으로일 반은크게 깃버하는중이더라 (군산)

◇廣州‖광주군(廣州郡)일 대에는심한가물로인하야 농사에 큰타격을 밧는다함은 본보에이 미보도한바어니와 지난 이십오 일에나린비로는 뎐곡(田穀)의 해갈은면하엿다고하나논에는조 금도 유익이업스며 산의나무와 풀도 말러버릴디경이요 한강중 류(漢江中流)에는강물이말러가 는터임으로 상류(上流)로 부터 나려오는 상선(商船)의 왕래는 컨부두절되야잇든바지난삼일오 컨십는시부터 희한한 감우(甘 雨)가나리기 시작하야사일오컨 ᄭᅡ지 두부지락비를 어덧다는데 련하야 흡족히 나리기를희망중 이라더라(광주)

◇殷栗‖황해도 은률 디방 (黃海道殷栗地方)은오래동안한 발로 인하야 농작물이거의고사 상태에이르러일반 농민들은 우 려와 공포에 ᄶᅡ히여 매우인심이 흉흉하든바 지난삼일 오후여섯 시부터 검은구름이 모히기시작 하더니 동남풍에 이른바다 비는마침내 나려나낫기 시작하야 밤새도록와서 농작물에는흡족하 다고일반은깃버한다더라(은률)

◇抱川‖포천(抱川)디방에 는 지난삼일 오후세시경에별안 간 폭풍이이러나며 검은구름이 모히더니 비가오기시작하야 농 민들은 이앙(移秧)에분주한 모 양이나 시긔가느젓다고 우려중 이라더라(포천)

◇郭山‖평북곽산(平北郭 山)일대에는 한발이심하야농사 는 긔미(己未)년이상이 되리라 고인심이 매우흉흉하던중 지난 이일부터 동남풍이 크게부러금 번에는 비가오면 ᄭᅥ지안케오리 라고하얏더니 과연 삼일밤삼경 에 세우가비비히나리기 시작함 으로 일반농민은 잠을자지안코 깃거하얏는데 사일정오에 뵈니 다시개고마럿슴으로일반주민은 소망이 흡족치못하야 무한한탄 식을하는중이라더라(곽산)

◇漆谷‖경북칠곡군(漆谷 郡)에는 이종긔가매우느진이ᄯᅢ ᄭᅡ지 비가오지아니하야 일반농 민들이 하날ᄲᅮᆫ올어러 비오기를고 대하던중 지난삼일 아침부터비 가오기시작하야 오후두시ᄭᅡ지 왓스나 배평삽두에 불과함으로 이종에대단부족되다하며권군답 만여정보의 약삼할밧게 이종을 부입다더라(왜관)

◇橫城‖강원도횡성(橫城) 일대에 비가아니와서 권답곡식 이거의다 마를디경에 잇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일로 말미암아 일반군민은 우려함을 마지아니 하야 이삼차의긔우제ᄭᅡ지 지내 엿다하며 이여횡성군수 석명선 (石明善)씨의발의로도 긔우제를 지낸바 그후몃칠이못되야 지난 삼일부터 비가나리기 시작하엿 다더라(횡성)

◇楊平‖양평(楊平)디방도 오래동안 한발이심하야 일반농 가는 이앙시긔에 이앙치못함을 무한히 초민하던중 지난삼일오 후세시경부터 동남풍이 대작하 며 소낙비가 일직경이나 나렷는 데 그억일아츰부터 비는다시나 리기시작하야 사일오후 배시ᄭᅡ 지 련하야왓슴으로 일반농가는 이앙할물이 만족함을 무한히깃 버하더라(양평)

◇北靑‖북청디방(北靑地方)에는 지난사일부터단비가내 리기시작하야 디방인민은 쉽부 러던일풍을꾀고깃버함을마지아 니한다하며 당분간은그대로계속 하야오기를바란다더라(북청)

安東縣馬賊事件

도합다섯명을잡엇는데 그중에한명은죽엇다고

지난삼일 오후십일시경에 안동 현삼번통팔뎡목(安東縣 三番通 八丁目)에잇는 중국극장 영락 무대(永樂舞臺)에서마적(馬賊) 과일중 경관사이에 총화를밧구 게되여 마적한명은 즉사하고한 명은중상을 당하고 그외세명은 사로잡히는 동시에 늣긋는려탄 에 관극자(觀劇者)중에서도 두 명이즉사 하얏다함은 이미보도 한바이어니와 이제그자세한 말 을들어보면 이마적단은 본래관 뎐현(寬甸縣) 일대를 횡행하며 민가에서 만흔략탈을하든 삼십 여명으로서 조직된 마적단인데 지난륙월 이십일에도 권긔관 현과 교컨이한번잇슨후 안동현 삼도구(三道溝)에서 중국관 리수구(梨樹溝)로 쫏겨와서 동 디에잇는 부호를 인질로잡아다 가 현금일만칠컨원을 ᄲᅢ아슨후 에그중에서 십사명은 무긔(武 器)를구입할목뎍으로 지난삼일 에 안동현(安東縣)에 잠입하얏 던것인데 이를추격하야온 관뎐 현 보갑대장(保甲隊長)이하 수 명순경은 안동경찰텽과 협력하 야 데포에 노력한결과 륙명은구 시가(舊市街) 동순잔(東順棧) 에서류하고 그외팔명은 신시가 (新市街)에 잠복하엿던이 잇슴 으로 곳컨긔동순잔으로 달려 가서 데포코커하얏스나 두명 은삼번통 영락무대로가고 그 외네명은 어대로인지 외출하 고업슴으로 컨긔 보갑대장은 순경수명을다리고 삼번통일본 경관파출소에교섭한후일중관헌 이협력하야가지고 컨긔 무대안 에서 데포코커할지음에 돌연히 마적은 권총을경관에게 향하야 발사한것이 관극자두명의 두부 (頭部)를맛처서즉사케한후장내 가소란한틈을타서 몸을 피하야 꼿도주하는것을추격하는경관들 은총을 발사하야한명은복부(腹 部)를마치고 한명은다리에중상 을주어 곳데포하는동시에 중국 려관가와각기생집을일일히수색 한결과 또한세명을 데포하야엄 중히 취됴중이라는바 경관의탄 환에 복부를마즌자는 안동경찰 서로간후 사일새벽네시에 절명 하얏다는데 이자들은 두목된[illegible] 의부하로서오명중에는 대양표(大洋票)이백팔십원과 중화사십원과대양(大洋)이십여 원이잇섯다하며 안동현경찰서에 서취됴가긋나는대로 중국경찰 텽으로인도하리라더라(안동현)

『엇더케든지 許時模를處置한다』

사회에대하야미안하다는

安息敎會某當局者談

본보에루보한평원의미국인허시 모만행사건에 대하야 안식교조 선합회(安息敎聯鮮合會)의책임 자모씨는말하되

『우리가 늘한말이지만은허시 모라하는 일개인의 일시의잘 못으로인하야 조선사회의 여 론을 이르키게된것은 진실로 미안하기짝이업는일이올시다 그리고 우리는 허시모에대하 여는 엇더케든지 처치를하야 조선사회 여러분의 요구에응 하여 드리겟다는것을 언명코 저합니다』

許時模事件 報告演說會

평양공회당에서

십이세소년김명섭(金明燮)군에 게 만행한 미국인 허시모(許時 模)사건에 그데론이다소가라안 는듯한넘도 보히든바 금번허시 모가 조부녀의어리석음을 리용 하야 관헌의보호하에 륙백여십 원의돈으로쇠사회하엿슴을따라 다시그문데가일반의여론에오르 는중인데 지난오일에는평양청년 김범룡(金凡龍)오관영(吳寬泳) 장지락(張志樂)김룡강(金龍岡) 사씨의주최로밤여덜시반부터평 양부내공회당(公會堂)에서허시 모(許時模)만행사건보고연설회 (許時模蠻行事件報告演說會)를개최하고연 사 삼강이산(森岡二三) 오관영 (吳寬泳)권정간첫(前井千城)삼 씨로부터 장시간열렬한 공서연 설이잇서 청중의긴장한중에 동아한시경ᄭᅡ지 대성황으로 ᄭᅳᆺ을마치엿다더라 (평양)

銀貨僞造者

검사국으로넘겨

북청군신창리경찰관주재소(北 靑郡新昌里警察官駐在所)에서 은화(銀貨)사주자를검거하얏다 는데 이제그내용을들은즉신창 리에서 금은세공업하는 지성옥 (池聖玉)이란자가사주권과계를 구입하야마능삼(馬能三)에게서 자금사백원을어더조계선(趙啓 善)이와공모하고 오십컨자리은 화를지여 시장에서 쓰다가발견 되야 경찰서의손에검거되고 검사 국에넘어갓다더라(북청)

婦女를毆打하야 一時昏倒케한者

셩질이원래패악하여서 그날도공연히구타하여

권북정읍군(全北井邑郡)고부면 관청리 (古阜面官淸里)김광암 (金光岩)의집에서는 지나간륙 일오후세시경에 일장풍파가 이 러나서 살인의참사를 연출하엿 다는데 그내용을들은즉 동리리 행신(李行信)의안해 김성녀(金 姓女)(三一)가 본시여염집녀자이 나 생활이곤난하야 이집커집을 다니며 일해주고 밥을어더수다 한가권의 그날그날의 생활을유 지하든중 그날은 김성녀가권긔 김광암의 집으로보리쌀을 갈러 갓는데권북 부안군(全北扶安郡) 부녕면(扶寧面)에본적을두고정 읍군고부면고부리(古阜里)에거 주하는 김동권(金東權)이가 고 부읍내유력자모모등오륙인과 작반하야 동리 리길록 (李吉錄)의 술집에서 술을한바 탕먹은후 몃사람은가고 김동권 외두어사람은 권긔김광암의집 에서 술을먹는동시에 김동권이 가 그술집안팟으로 출입하며김 성녀의몸을 두차다치며 바도그 압헤서 소변을보는고로 김성녀 는 자긔의박명한 신세를자탄하 고 온순한어조로 남녀기유별한 데그와가튼 무례한행동은 점잔 은남자의 톄면이아니라고 책망 한즉 김동권은 도로혀악당패설 로주뎜에서 일하든 녀자에게는 엇던행동도조타하며 무수란타 하야김성녀가 그자리에서긔절하야오륙시간을 죽어넘어젓슴으로그의남편리행 신이가즉시고부주재소에고발한 결과일순사한명과조선순사가공 의청류(靑柳)와동반하야현장에 출장하야진찰하고응급치료도두 차례나주사를하야 그이튼날상오 다섯시경에야 겨우생명은회복 하엿스나 지금것 음식을불통하 며 코와입으로 붉은피를토하야 생사가 미판인데 가해자김동권 은 현장에서 데포하여 취조밧는 중 소위공의는 진단서를 날거 나 미두니가 사흘후에야 삼주일 진단서를 해주엇슴으로 고부유 력자들의 권고로 고소인리행신 은 부득이치료비로 삼십원을 밧고삼주간고 소를 유예하엿스나 만삼주간에 차효가업는경우에는 다시 진단 서를내여경찰서혹은검사국에고 소를하긔로할작정이라더라(정읍)

抱川郡에 無錢取食者

검사국으로갓다

본적을경성대연동(京城大然洞) 일백삼십구번디에둔 고명식(高明 植)(四三)은 지나간오월사일오 후팔시경에 양주군은현면 선암 리(楊州郡隱縣面仙岩里)팔백팔 십이번디에서 음식영업하는 최 순명(崔順明)의집에가서이원십 오전어치의술과 밥을먹고 포천 (抱川)방면으로도주(逃走)하야 방황하던중 지나간 륙월십칠일 포천경찰서형사들이동군신북면 가채리(新北面加采里)로야간사 찰(夜間查察)하던중권긔고명식 이가형사가온것을먼커알고뒷산 으로도망하다가형사에게안배되 여형사들은그뒤를추격하엿스나 그날밤에는잡지못하고그이튼날 에야권긔가채리에서데포한후이 래취조중이더니 고명식은 권긔 와가튼 사실을 자백하얏슴으로 지나간륙월이십팔일에검사국으 로송치하얏다더라(포천)

面技手公金橫領과 不當한面當局의措處

횡령기수는다러나게두고 그담보인에게만돈을바더

평남대동군대동강면 (大同郡大 同江面) 의면기수김필배 (金弼 培)(三六)는 지난오월경 동면면 사무소에 사직원을 데출하고그 후보자를 기다리든중 지난륙월 구일경 공금근이백원을 횡령도 비한사건이 발각되엇는바 동 면사무소에서는 김필배의 륙월 분봉급과 퇴직금과 의무저금액 을그곳에 충당식혓스나 오히려 팔십여원이 부족되엇는바 면당 국에서는 하등의 별조처가업시 오직 면직사령서만 한장주어그 의고향으로 돌려보내노코 그후 권긔김필배의 면기수 임명보증 을하엿던 사람들에게 권는아모 예동조차 업시두엇다가 김필배가 안컨히 도망하엿슴을 지 음에야비로소 면당국에서는 돌 연히 어인영문조차 모르고잇던 임명보증인인 평남도텽의 오모 (吳某)와 재당회사의 김모(金 某)두사람에게 공금횡령차인잔 액팔십여원을 분배보상 식혓다 는데 이사건에대한 면당국의취 한조처는 크게정당을 일헛슬뿐 더러 범인김필배를 감추어둔혐 의를밧는중 이라더라

橫領事件이 頻頻한原因

군텽임원의 채택을탓하야

이번김필배의 공금횡령 사건에 대하야 면당국의조처에 분개한모 씨는 말의범위를줄리어 금번과 가튼 공금횡령사건은 동면사무 소내의 처음일이아니라 이컨에 도 두번이나잇서 수천여원의횡 령사건이 계속뎍으로 발생되엇 슴에도 이러케공금횡령 사건이 이러나는것은 군당국에서 그디 방의 본토인중에서 뎍임자를재 택사용하지 안는것이 다분의원 인이어서 외디방으로부터 떠들 어온자가 면사무소의 어리석은 틈을타서 한판식하여먹고는 달 아나버리게 하는ᄭᅡ닭 이라고 볼수잇다는바 금번공금횡령사 건에대하야는 군당국의 묵찰이 잇다고도 아니볼수업는바 이라 하야 군당국을 비난한다더라 (평양)

菜蔬組合이 斗團里民의

생도를끈허노아

평남도텽에서는 금춘부터 대동 군대동강면두단리 (大同郡大同 江面斗團里)에모범뎍채소를배 양하겟다는 방침아래에 소채조 합(蔬菜組合)을 설치하고 동리 주민삼십일호로 하여금 동조합 에 가입식혀 조합원컨부의경디 면적 이만여평에인삼(人蔘)완 두(豌豆)우방(牛蒡)감남(甘藍) 토란(土蓮)마령서(馬鈴薯)등재 배를 지뎡후 도디방비로써소채 종배양과 소채기수일명을 두엇 섯는바 채수의첫름 파종긔에는 비가업슴으로인하야 파종이 한곳에 이천여평에 달

旱災의所致요

당국에허물이업다

다시 지난번ᄭᅡ지의 배한재로말 미아마 소채컨부는 절망상태에 이르럿는데 이에ᄭᅡ지 상당한수 입을 가지든 권긔이만여평의큰 경디에는 아모것도업서 일반조 합원은 한재그것을 한탄하는동 시에 도당국의새방침을 못내원 망하는중이라더라

◇拔手安命三氏談 권긔두단리의 일반주민의 원성 이심하다함에대하야 긔수 안명 삼(安命三)씨를방문한즉 그는말 하되『조합원이 도당국을비난한 다함은오해오 도당국에서는 막 대한비용ᄭᅡ지를지출한후일반주 민의 리익을위하야 동조합을세 운것인데 공교히 비가안와서이 러케된것일ᄲᅮᆫ이며 우리에게는 허물이업소하더라(평양)

孤獨과生活難을 悲觀하야自殺

륙십오세로인이

충남연기군조치원 (忠南燕岐郡鳥致院)본뎡통이뎡목 (本町通二丁目) 음식뎜영업하는 최찬옥 의집뒤에잇는공동뎡호(共 同井戶)에 사람이ᄲᅡ져죽엇다고 오일오컨두시반경에 경관이 모 혀들고 이웃에 자든사람들이인 산인해를이루엇섯는데 그ᄲᅡ져죽은 사람은례산군읍내(禮山郡邑內) 에사는 금년륙십오세된 리학신 (李學信)으로 지난오월십팔일 에 공주(公州)디방으로부터 조 치원에와서 본뎡이뎡목 김만 원(金萬源)의 음식뎜에 주인을 뎡하고 낫이면길가에안저서 오 고가는 사람의 헌신을꾀매주고 삯을 건저가든터인바 죽든컨날 ᄭᅡ지도 역시길가에서 오고 가는사람의 헌신을 기어주고저 녁에는 몸이불편하다고 하엿섯 는데 엇지된ᄭᅡ닭인지 오일오컨 두시경에 신도신지아니하고 대 문을 남이모르게열고 주인집에 서략백간가량이나가다가 권긔공 동우물에 투신자살을 하엿다 는바 그ᄯᅢ마츰 엽집최찬옥이가 밤중에 잠이오지아니함으로 마 당에 나섯다가 우물에서이상한 소리가남으로 사람을 불러여그 미테 싸진사람을 구하엿스나벌 서절명되엿슴으로조치원경찰서 에긔별하야경관이현장에출장한 후시톄는 권긔김만원에게로인도 하야당분간 보관하기로 되엿다 하며 사망한원인은 알수업스나 그로인의행동과 평상시의 지내 든것을살펴보면 의지할곳도 업 는중에몸에는 병이 첩첩함으로 권도를비관하야 그와가티 자살 한것인듯하다더라(조치원)

平壤電氣 期成會問題

목뎍관철할ᄯᅢᄭᅡ지 ᄭᅳᆺᄭᅡ지보존키로

긔보‖평양전긔부영긔성회에 서는 지난삼일밤여덜시반경 부 내화뎡녀학교(華頂女學校)에서 회를개최하고 금번 평뎐문뎨를 부영으로 결착하엿슴에 대하야 여러가지의론이 잇섯는바 동회 가 표면으로는 긔디하를 부르지젓 스나 기실부영을 목뎍 하엿섯 고 평양발뎐에관한것을 일개영 리회사에 독컴식힘은 극히부당 하다는여론이 이러나는 동시에 금번 평양부윤의진력으로도 부영 으로 결착되엇슴을 일반이크 게 깃버하엿스며 그러고긔성 회는 비록성공의 일단락을고하 엿스나 근본긴관의 리하는아직 성공한바가 아니고다만 부영 을 컨데로 해결을림시보앗슴에 불과하즉 더욱적극뎍으로 동회 목뎍을 관텰하자하야 동회를해 산하지말고 다만일톄로 회합을 긴밀히 하기위하야는 잔무정리 위원(殘務整理委員)으로 일본인 측십명 조선인측 십명을동회대 표로 선뎡하엿스며 동회에서는 부영으로 완결되는날 ᄭᅡ지존 속식히기로 결뎡하엿는바 이결 의에 이르기ᄭᅡ지는 일반회원으 로부터 다소부영에대한 의문을 평양부영수도처치가관료식임에 감하야 폐단잇는것을 말하는이 가잇섯스나 그것은 개정을운동 하기로하고 도뢰여 부영촉성에 로력하기를 가결하엿다더라

總督의致賀狀

평양면

긔문데가 원만한 일단락을고하 엿슴에대하야 조선총독은뎐긔부 영긔성회와 평양축과 평양부윤 에게보낸치하장이지난삼일평양 에도착되엿는데 요명은다음과갓 다더라

三陟衡平分社 創立總會

지난이십칠일에 장지필씨사회로

삼척형평분사(三陟衡平分社)의 창립총회는 지난이십칠일 오후 구시에 삼척면원당리(三陟面元 堂里)형평분사회관에서 김만학 (金萬學)군의사회로의장장지필 (張志弼)씨가의사를진행하고동 일오전 한시에 무사폐회하얏 는바당일의 결의는 아래와갓다 더라(삼척)

◇委員

一、分社長金貴用▲評議員八人

◇決議

一、敎養에關한件
一、衡平運動進行方針
一、役員改選
一、本分社維持의件
一、本部會館에關한件
一、差別待遇及反動分子에關한件
一、其他事項
 一、月捐金納付方法
 二、三陟小作紛糾事件

創立紀念祝賀

권례업는대성황

형평사삼척분사(衡平社三陟分 社)에서는 지난이십칠일오후한 시부터 죽서루(竹西樓)에서 백 여명의 형평사원과 수백의래빈 (來賓)이운집하야 만여매의선 전지(宣傳紙)를 배부한후 조선 형평사 중앙총본부상무위원 장 지필(朝鮮衡平社中央總本部常 務委員張志弼)씨의 열렬한 개회 사(開會辭)와취지설명으로개회 의축뎐(祝電)과 십여통의 축문 (祝文)을 낭독하고 김만학(金 萬學)김성순(金成順)량군의연 설이잇슨다음 래빈의 소감으로 박준룡(朴準龍)컨순갑(全順甲) 김춘봉(金春逢)삼씨의열렬한축 사로폐회하고 이어서 다과회를 여럿다가 그림사진촬영을 마치 고동오시에 폐회하얏는바 권례 업는성황을이루엇다더라(삼척)

휘파람

▲일컨에평양(平壤)긔림리(箕林里)에서 어 압뎐차정류장에서어 던배추장사한아가쉬 고잇노라닛가 대동(大 同)경찰서 일본순사 나으리한분이 『유가 다』만걸치시고 산보를나왓다가 ▲담배를 부칠텐데 성냥이업 서서 배추장사보고성냥을 달 라고하얏는데 마츰그는 성냥 을 가지지안어서 못주엇다▲ 그리고 그는모처럼 청냥한아 청하는데 못준것이 미안하야 혼자말로『성냥을가지고올걸!』 하얏섯다▲순사나리별안간 안첫 다일어나며 놀린다고 배추장사ᄲᅣᆷ 을한번『탁!』▲배추장사가 꽁매 맛고분해서순사나으리를 ᄯᅢ린다귀 가 말낭날낭하도록 다듬엇다 고 ▲결국 경찰서에가서는 도리혀 나으리가상관에게 ᄭᅮ중을톡톡 히듯고활극(活劇) 일막은마치 고말앗다

수日

廣陵中學對中央高普大野球戰

(三壘側) (一壘側)

午後四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觀覽料 指定席 五十錢 一般席 三十錢 學生 十五錢

主催 朝鮮日報社